

고금리·부동산 침체에...은행 가계대출 11개월만에 뒷걸음

3월 2.1조원 줄어...1분기 가계신용 비율 100% 밑돌 가능성 기업대출 증가세는 여전...올들어 3개월만에 17조 이상 급증

높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약 1년 만에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줄었다.

추후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미뤄 올해 1분기 중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이 3년 반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 대출의 경우 한 달 사이 다시 8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잠재적 금융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3월 주담대도 1조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0.18% 그쳐 = 지난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 28일 현재 693조6834억원으로, 2월 말(695조7922억원)보다 2조188억원 적다.

한 은행(+355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916억~9738억원 줄었다.

월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2023년 4월(-3조2971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첫 감소(전월 대비) 기록이 확실시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36조307억원)이 역시 열한 달 만에 처음 1조657억원 뒷걸음쳤고, 신용대출(103조497억원)은 6354억원 더 줄어 2023년 10월(+

6015억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역성장은 2년 반 가까이 통화 긴축정책과 함께 높은 금리가 유지된 데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앞서 14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근거로 고금리,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만 보자면, 작년 말(잔액 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 3월 28일까지 불과 0.18%(1조274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은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가 2.1%에 이르는 만큼, 1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가계대출 증

가율을 웃돌아 GDP 대비 가계신용(빚) 비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구나 은행권의 가계대출 감소세는 이달 확인됐지만, 비(비)은행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미 2월(-1조8000억원)부터 줄기 시작했다.

이런 통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분기 100%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0.1%)은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4.4%p·104.5→100.1%)은 영국(-4.6%p·83.1→78.5%)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만약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90%대로 떨어지면,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3년 반 만에 처음이다.

◇기업대출 3월에만 7.7조원 ↑...기업 자금난에 은행 대출영업 강화까지 =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 증가세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의 운영자금 대출 수요가 여전히 많을 뿐 아니라, 은행들도 가계대출 성장 부진을 상쇄하는 차원에서 기업 대출营业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28일 현재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모두 784조4562억원으로, 2월 말(767조7107억원)보다 7조7455억원 또 늘었다. 작년 말(767조3139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3개월 사이 17조1423억원(2.2%)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7조8345억원(작년 말 630조8855억원→638조7200억원), 대기업 대출도 9조3078억원(136조4284억원→145조7362억원) 늘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봄맞이 정기세일 14일까지 127개 브랜드 참여 의류·생활용품 30~50% 할인

광주신세계가 봄을 맞아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봄 정기세일'에 나선다.

이번 정기세일은 '신백 멤버스 페스타'를 테마로, 오는 14일까지 총 127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먼저 봄을 맞아 여성류 브랜드인 '쉬즈미스', '폴햄', '게스진', '올리브데올리브'와 '본', '레노마' 등 남성 브랜드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분관 8층 생활용품브랜드 '닥터하우스', '앤스티치'는 최대50%, '르크루제', '롯데' 등도 봄식탁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30% 할인가에 판매한다.

지하1층 '프레쉬포인트', '데미쥬', '와릿이즌' 등은 집구류와 의류를 4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의류브랜드 '리스트'는 50%, 신관지하1층에 위치한 '제시믹스', '골스튜디오' 등 스포츠브랜드와 '버커루', '세컨스킨', '엘르', '게스이너웨이' 역시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블루독베이비', '닥스키즈' 등 아동브랜드와 '알레르망', '닥스홀패션', '윤현경' 등 생활브랜드도 20% 할인판매한다.

광주신세계는 봄정기세일과 함께 오는 7일까지 분



광주신세계 의류브랜드 리스트 매장 직원들이 봄 신상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관1층이벤트홀에서올해첫 '팩토리스토어'를진행한다.

'프라다', '골로에', '메종마르젤라', '툼브라운' 등 유명 해외브랜드 25개가 참여하며, 패션·라이프스타일상품들을 30~8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신협 광주전남본부 지난해 1조원 자산 성장

사업평가·설명회...순익 198억원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해 1조원 가 까운 자산 성장과, 당기순이익 198억원을 기록했다.

신협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29일 '2023년 사업평가 및 2024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조합 사업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직원 및 조합을 시상하고, 2024년 슬로건 '위기를 기회로, 제도와 광주전남'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협은 종합경영대상 등 5개 부문에 대해 29개 조합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종합목표관리평가 우수직원, 우수지표 달성 직원, 공제실적 우수직원 등 3개 부문에 대해 직원 17명 시상을 진행했다.

신협에 따르면 광주전남신협 자산은 2022년 1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290억원(6.2%) 성장한 15조9000억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198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위기를 기회로, 제도와 광주전남'을 올해 캐치프레이지로 선포하고, ▲금리전략수립을 통한 수익구조의 회복 ▲내부유보 강화 ▲순실조합 축소 ▲상생문화 정착 등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어려운 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구낸 87개 조합 임직원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신협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의 신뢰와 조합의 확실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아 불확실시대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삼성전자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절전효과 탁월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 결과

삼성전자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의 소비전력량이 LG 등 경쟁사 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미국 에너지스타에 따르면 비스포크 AI 콤보의 미국 모델인 WD53DBA900H의 연간 소비전력량은 319킬로와트시(kWh)로 확인됐다.

LG전자 트롬 오브제컬렉션 위시콤보의 미국 모델 WM6998H의 연간 소비전력량은 380kWh,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투인원(2-in-1) 세탁건조기 콤보 PFQ97HSPVDS의 연간 소비전력량은 399kWh로 각각 조사됐다.

건조기의 효율을 나타내는 CEF 항목은 삼성전자 제품이 7.50으로 가장 높았고, LG전자가 6.30, GE가 6.00으로 표시됐다. CEF는 단위 에너지당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비스포크 AI 콤보와 동일하게 세탁 용량 25kg, 건조 용량 15kg인 WD53DBA900H 모델을 다음 달 것으로 미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자사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적다고 마케팅해왔으나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났다"며 "미국 출시제품보다 건조 용량이 큰 국내 출시모델의 소비전력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비스포크 AI 콤보의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은 432.3와트시(Wh)로, 연간 소비전력량은 90.8kWh다.

단위요금 160원(1kWh 기준)과 연간 소비전력량 90.8kWh를 곱한 연간 에너지 비용은 1만 5000원으로, 국내 통종업계 일체형 세탁건조기 기준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7대 회장에 김현수 티나 대표 선임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7대 회장에 김현수(사진) 티나 대표가 선임됐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15차 총회에서 김현수 선임 회장을 선임했다.

김현수 회장은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토대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협회의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며 "지역기업의 판로확대는 물론, 대기업과 연계해 중앙진출을 도모하

고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업의 자금확보와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7년간 협회 회장을 맡아온 김명술 회장은 이날 성상업 벤처기업협회장 감사패를 받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북구 미국 진출 1000만 달러 수출 계약

광융합무역촉진단 7일 일정 마쳐

광주 북구가 첫 미국 시장 진출에서 10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 북구는 AI와 광융합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미국 샌디에이고와 LA 현지에서 1000만 달러 규모 현장 실계약과 약정계약, MOU 체결 2건의 성과를 냈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역촉진단 운영은 지역 4차산업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며 "북구 해외 판로 지원 정책이 지역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di@kwangju.co.kr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난 25일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와 북구 지역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지원 등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OFC(세계 광통신 박람회)에 참여해 다각적 판매 행보를 펼쳐 325만 달러 현장 실계약 체결과 675만 달러 약정 계약을 성사했다.

또 수출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 현지 기업과 무역촉진단 참여 2개 AI기업은 MOU를 체결했다.

한국 100조원 '해상풍력발전 드라이브'...초대형 시장 열린다

2030년까지 설비 14GW 확충 목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면서 2030년까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설비용량 14.3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상업 운전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 탐라(30MW), 서남권(60MW), 영광(34.5MW) 3곳에 불과하다. 개별 단지의 규모도 작아 세 곳을 모두 합친 누적 설비용량은 124.5MW(0.1245GW)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아직 국내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4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7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도전적인 상황이다.

1GW는 일반적인 원전 한 기 설비 용량 수준이다. 해안선에서 멀게는 수십km 떨어진 바다에 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려면 5MW 터빈이 달린 풍력 발전기 200개를 바다에 꽂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시장에서 1GW당 건설비는 통상 5조원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지속 여파로 7조원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1GW당 건설비를 7조원으로 잡으면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을 국내에 보급하는 데 민간을 중심으로 최대 약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많은 국내외 민간 기업과 기관이 산업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진척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곳은 83개 단지로 설비용량만 27GW에 달한다.

실제로 이 중에는 단일 사업으로만 총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도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작년 11월 인천에서 70km 떨어진 서해에서 1.6GW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얻었다.

오스테드는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 8조원을 들여 이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가동되면 수도권 100만 가구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